



이강인 아틀레티코 데뷔골… MVP 선정

라리가 2026~2027시즌 개막… 말라가와 1라운드 교체 투입된 후반 25분 왼발 감아차기로 선제골 3년 3개월 만에 라리가 복귀 득점… 팀은 2-0 승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새 등지를 뜬 이강인이 라리가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폭발했다. 이강인은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아에어 메트로 폴리타노에서 열린 말라가와 2026~20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25분 아틀레티코의 선제 결승 골을 책임졌다.

이강인은 다비드 한츠코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세 시즌을 뛴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떠나 이달 아틀레티코로 이적한 이강인이 공식 데뷔전에서 넣은 데뷔골이다.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득점한 건 마요르카에서 뛰던 2023년 5월 빌바오와 경기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아틀레티코를 승리로 인도한 이강인은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아틀레티코는 후반 40분에 터진 알렉스 바에나의 프리킥 골을 더해 2-0으로 완승했다.

이강인은 병역 특례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느라 아틀레티코의 프리 시즌 훈련에 늦게 합류했다. 그를 비롯해 주요 이적생 다수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르코스 요렌테, 바에나(이상 스페인), 줄리아노 시메오네, 훌리안 알바레스, 크리스티안 로메로(아르헨티나) 등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프리 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선수

들 역시 벤치에 앉거나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

전반 답답한 흐름으로 무득점을 기록하자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요렌테를 투입했다.

이어 후반 12분에는 등번호 7번의 이강인과 바에나가 동시에 그라운드로 들어갔다. 마르틴과 교체된 이강인은 폭넓게 움직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나갔다.

이강인은 후반 14분, 30여m 거

리에서 과감한 왼발 중거리슛을 날렸다. 후반 20분에는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또 한번 골문을 겨냥했다.

예열을 마친 이강인의 왼발은 후반 25분 제대로 번득였다. 오른쪽에서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수비 3명을 제치며 빠르게 중앙으로 파고 들더니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 가장자리에 왼발 슈팅을 꽂아 넣었다. 투입 13분 만에 득점 포를 가동했다.

연합뉴스



이강인이 후반 25분 수비 3명을 제치고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아틀레티코 데뷔골이자 팀의 시즌 첫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2026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 “금 40~45개… 목표는 일단 종합 3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한 달 앞둔 대한민국 선수단이 ‘톱3’ 유지와 일본과의 격차 좁히기를 목표로 내걸었다.

대한체육회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한달 앞둔 2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D-30 미디어데이를 열어 대회 목표와 준비 상황 등을 전했다.

하계 아시안게임의 20번째 대회인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는 9월 19일 막을 올려 10월 4일까지 16일간 나고야를 비롯한 일본 아이치현 일대에서 펼쳐진다. 일부 종목은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등에 분산돼 열린다.

이번 대회엔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 총 469개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단 약 1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43개 종목 중 크리켓과 파들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비롯해 1052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체육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표는 금메달 40~45개를 따내 종합 3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내심 그 이상을 노리는 분위기다.

유승민 회장은 “3위 목표가 제시됐지만,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다 보니 선수들도, 지원하는 체육회 입장에서 각오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에 오른 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에서는 연이어 3위에 자리했다.

‘아시아 최강’ 중국이 1위를 지킨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2위를 다퉈왔는데, 최근에는 국제 종합대회에서 일본의 강세가 뚜렷하다.

일본은 2021년 도쿄 올림픽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모두 미국, 중국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라 한국(도쿄 16위·파리 8위)에 크게 앞섰다.

연합뉴스

제주SK FC, 코리아컵 8강 진출 무산

19일 FC안양과 16강전 원정 경기 1-2로 분패

제주SK FC가 FC안양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코리아컵 8강 진출이 무산됐다.

제주SK는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의 ‘2026~2027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에서 1-2로 패했다.

지난 주말 K리그1 23라운드에서 2-0으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을 기대했지만 원정경기의 부담을 덜어 내지 못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제주SK였다. 전반 31분 신상은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침투한 뒤 문전 앞으로 강하게 볼을 연결했고 골키퍼를 맞고 흘러나온 볼을 최병욱이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제주SK는 후반 3분 김영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실점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유무 논란이 있었지만 코리아컵 비디오 판독

(VAR)은 대회 8강부터 가동하기 위해 제주SK의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후 제주SK는 곧바로 공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후반 23분 이진웅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리드를 내준 제주SK는 후반 27분 역습 상황에서 김신진이 내준 볼을 네게바가 희심의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아쉽게도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났고 말았다.

제주SK는 교체카드를 활용하며 막판 공세에 나섰지만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분투를 삼켜야 했다.

이로써 제주SK는 지난해 3라운드 탈락에 이어 올해는 4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편 제주SK는 22일 김천상무를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K리그1 24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위영석기자 yswil1968@ihalla.com

스페인 매체, 이강인 집중 조명

“꿈같은 데뷔… 새로운 영웅 탄생”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치른 첫 경기부터 번뜩이는 데뷔골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장식한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 현지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 ‘마르카’는 경기 후 이강인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별 3개를 부여하며 그를 경기 최우수 선수(POTM)로 선정했다.

마르카는 ‘아틀레티코가 그들의 새로운 영웅을 연호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이강인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발견했다”고 극찬했다.

또 다른 유력 스포츠지 ‘아스’는 1면에 이강인을 대서특필했다. 아스는 놀라움과 극찬을 뜻하는 프랑스어 표현 ‘오 라 라’(Oh, la, la)를 빌려 ‘오 라 라, 이강인!’을 기사 제목으로 내걸며 “꿈같은 데

뷔”라고 평했다.

이어 “말라가가 좋은 수비를 펼쳤지만, 7번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마치 앙투안 그리에즈만처럼 멋진 골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그리에즈만은 아틀레티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상징적인 선수로, 이강인은 그의 등번호인 7번을 물려받았다.

스페인 대표 일간지 ‘엘 파이스’는 팽팽하던 흐름을 단순히 바꾼 결정력에 주목했다. 엘 파이스는 “이강인의 득점은 팽팽했던 막판의 불안감을 단순히 잠재웠다”며 “그

의 어깨에는 모든 이들이 ‘그리에즈만을 잊게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적었다.

스페인 매체는 물론 글로벌 매체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이강인이 훌륭한 데뷔골을 넣었다”며 새 시즌을 산뜻한 승리로 열어젖혔다고 타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이강인이 데뷔전에서 놀라운 골을 터뜨렸다”면서 그의 득점이 홈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완벽한 승리를 안겼다고 조명했다.

연합뉴스

제주직항 없을 때는 **청주경유가 최고!**

제주↔청주↔장가계

장 9월 특가 (노옴션)

3박4일(토) 4박5일(화)

849,000

제주↔청주↔베트남

베 3박5일 (노옴,노옴션) 다낭&호이안

750,000~

나트랑&달랏

제주↔청주 국내선 별도

제주↔일본전세기 3월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1,099,000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옴! 노옴션! 노옴핑!

항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가을 항산 4인 출발확정

• 10.8(목)-11(일) 1,249,000(한글날연휴) • 11.2(월)-5(목) 1,199,000

① 10.08(목)_10.11(일) **연휴/한글날(황산)**

② 10.22(목)_10.25(일)

③ 11.02(월)_11.05(목) **가을 황산**

④ 11.26(목)_11.29(일)

⑤ 12.24(목)_12.27(일) **연휴/크리스마스**

⑥ 12.31(목)_01.03(일) **연휴/신정**

⑦ 01.14(목)_01.17(일)

⑧ 02.05(금)_02.08(월) **연휴/구정**

⑨ 02.26(금)_03.01(월) **연휴/삼일절**

⑩ 03.25(목)_03.28(일)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제주시 진남로 32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공항세,TAX,유류할증료 포함), 호텔(2인1실), 차량료, 입장료, 식사,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불포함 사항: 부가가치세(10%), 봉사료, 선택관광 |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